일본 정치와 경제

일본어일본학과 21802008 김주연

# 일본 국가 형태와 정치 체제에 대해서

목차

1. 개요
2. 정치제도

2-1의회 민주주의

* 1. 의원 내각제

2-3상징 천황제

## 개요

일본은 대의제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를 취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의 정치는 일본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 헌법의 중요한 3가지 원칙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가 있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입헌 국가이며, 일본의 행정과 사법은 헌법과 국회의 법률로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입헌 국가이자, 법치 국가이다.

일본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하는 국민 주권을 정한다.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3권으로 나누고, 각각 국회·내각·재판소에 배치하는 권력 분립 체제를 정한다.

국회를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보는 의회제 민주정치가 행해지고, 국회와 내각의 협동으로 내각제가 채택된다.

헌법 제1장에서는 주권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라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의 지위에 있는 천황을 둔다(상징천황제).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헌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사행위만을 실시한다.

일본 헌법은 또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전국을 47개 지역에 걸쳐 골고루 나눈 도도부현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눈 시정촌(우리나라의 시읍면)의 2단계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담당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각각 의사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우리나라의 시장)을 둔다.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작은 법)를 제정할 수 있다. (시의회의 조례 제조)

## 2. 정치 제도

### 2-1 의회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같은 말로 간접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

간접 민주주의는 민주 정치의 하나이며,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자가 일정 기간 자신의 권력의 행사를 신뢰하고 정치를 위탁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를 의사의 반영 · 실현 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간접 민주제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 2-2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는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최초의 의원 내각제는 18세기말 영국에서 성립되었다.

초기형의 의원 내각제는 이원주의형 의원 내각제라고 불린다.

18세기말 영국은 의회가 힘을 가지면서도 국왕의 권력이 막강한 시대였다. 이원주의형 내각제에서 내각은 국왕의 신임도 받아야 했지만 의회의 신임 역시 받아야 했다.

의회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지위는 정치적 근거를 상실했고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했다.

이처럼 내각이 군주와 의회 모두를 책임지는 제도가 이원주의형 내각제이다.

이 제도에서 내각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회와 정통적 권력 상징의 군주 사이에서 양측의 의향을 적절히 조절하며 실제적 정치를 이끌었다.

이후 민주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다른 기관들에 대해 우위를 차지했다.

이것이 의회제 민주주의의 기초적 부분의 성립이다.

군주의 지위는 점차 낮아지고 의례적, 형식적으로 바뀌면서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이 중요해졌다.

이에 이르러 내각은 군주에게 남아 있던 권한을 흡수,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권을 갖게 됐다.

현재의 일본을 시작해 많은 나라들이 일원주의형 내각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일본 헌법에 있어서 의원 내각제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의 4가지다.

1. 국회의 의사에 의해 성립·분립되어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해야 한다.

이 지명에 따라 천황이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즉, 국회의 의사가 내각의 성립을 좌우되고 있다.

단, 내각은 국회 기관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국가 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있다.

국무대신을 임명 또는 파면 (파면: 그만두게 하는 것)하는 권한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있으며, 국회 기타 기관에 의한 관여는 할 수 없다.

1.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 국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내각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범위에 걸친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은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 책임에 물어야 할 행위, 조건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책임이 의미하는 바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정치적 책임을 뜻하며, 국회의 결정이나 의사에 대해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는 기본 자세나 이념을 의미하고 있다.

국회는 질의, 결의, 국정조사, 중요의안, 부결 등의 방법으로 내각의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최종적인 판단이 행해지는 것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내각의 연대 책임은, 내각의 일체성을 나타내며 국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내각은 국회와의 통일성 확보가 요구된다.

그 때문에, 내각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국무대신은, 관행으로서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내각 총사퇴

중의원은, 내각에 대해서 신임 또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또는 내각신임결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1. 중의원의 해산권

의원내각제의 본질은 내각과 국회의 양자가 균형 잡힌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중의원의 내각 해산권과 함께 내각 총리 대신은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이 있다.

중의원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의 본질적 요소다

### 상징천황제

상징천황제란 천황이 정치적권력을 갖지 않고 국민합의 상징 역할을 하는 체제를 말한다.

일본 헌법에는 제 1조에서는 천황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천황의 존재 의의는 일본인의 국민성 확립으로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데 있다.

상징천황제는 1946년 11월 3일에 발포되어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에 처음 규정되어 시작됐다.

그리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정된 이후부터 대일본국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상징 천황제가 아니었다. 메이지 시대부터 패전까지의 천황제를 여기에서는 '근대 천황제' 로 현재의 상징 천황제로 비교해본다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1. 헌법의 제정자.

메이지 헌법의 제정자는 메이지 천황으로 입헌 군주제의 국가체제에 맞춰 황제의 권력을 어느정도 제어하는 구조였으나 황제의 뜻이 크게 반영되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헌법은 패전 후 GHQ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일본의 정치가들이 나라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천황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천황의 권력을 확실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1. 주권자

주권자는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메이지 헌법의 주권자는 메이지 천황이고 현재 일본의 헌법인 일본국 헌법에서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이로서 주권자가 천황이 아니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구조상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1. 천황 지위의 정당성

천황의 지위에 대해 각각의 헌법에는 아래처럼 기록되어 있다.

상징천황제 : 국민의 총의에 의거한 것.

근대 천황제: 만세일계의 가계일 것

메이지 시대부터 대전까지의 근대 천황제에 있어서의 천황은 매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의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었다.

천황 권력의 정당성은 고대로부터 이어진 만세일계의 통치자로서의 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천황가는 기기신화(記紀新話)(<일본서기><고사기>에 기록된 일본 신화)에 뿌리를 둔 신으로 일본을 줄곧 통치했던 가계이다. 또한 일본 국민은 천황의 아들이다.

간단히 말하면, 「평생 일본을 통치해 온 신의 가계였고, 일본인은 쭉 피통치자였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로 천황의 지배가 정당화되었다,

반대로 상징 천황제의 천황의 지위는 "주권자 인 국민의 총의에 근거" 라고 되어 있다. 즉, 국민 모두가 천황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황이 천황으로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1. 천황의 역할

천황의 역할은 일본 헌법과 메이지 헌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 있다.

상징 천황제: 국민의 상징

근대 천황제: 국가의 총람자

메이지 헌법에서 [국가의 총람자]란 간단히 말하면 국가의 통치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징 천황제에 있어서의 천황의 권력이나 입장은 메이지 헌법과 비교해서 매우 약하고 애매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